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0. 30.(수) 11:00,
(지면) 2024. 10. 31.(목) 조간

배포 2024. 10. 30.(수) 06:00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안전한 일상공간으로 변모

- 해수부, 10.31(목)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준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연안침식 및 배후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부산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금년도 10월 31일(목) 준공한다고 밝혔다.

* (사업기간/사업비/사업내용) '15.4.~'24.10. / 315억원 / 방재호안 930m, 수중방파제 2기, 양빈 등

부산 다대포해안 동측지구는 과거 백사장으로 유명했으나, 연안침식이 진행되면서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갔다. 또한 태풍기에 고파랑이 내습하는 빈도가 늘면서 배후에 위치한 상가와 주택에도 침수 피해가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의 연안재해를 예방하고 해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단계 사업은 930m의 방재호안 및 해수 취수시설 설치 공사로 2019년 11월에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수중 방파제 220m와 양빈 공사로 금년도 10월에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연안침식을 억제하고, 배후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자연 친화적 공간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다대포해안이 다시금 안전한 일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980)
		담당자	사무관	김갑용 (044-200-5985)
담당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책임자	과 장	송장현 (033-520-6750)
		담당자	사무관	노영호 (051-609-6781)

□ 사업 목적

- '94년까지 백사장이던 다대포 동측 지구에 이상파랑으로 인한 침식, 월파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하여 연안 재해예방 도모

□ 사업 내용

- (사업규모) (1단계) 방재호안 930m, 배수 및 해수 취수시설 1식
(2단계) 수중방파제 220m, 잘피이식 27만주, 양빈 4.9만^m³
- (사업기간) '15.04. ~ '24.10. (1단계: '15.04.28 ~ '19.11.22, 2단계: '21.08.26 ~ '24.10.31)
- (사업비) 315억(1단계 : 92억원, 2단계 : 223억원)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4. 09. :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2010~2019) 반영
- '15. 0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5.4 ~ '16.4) 시행
- '19. 11 : 1단계 방재호안 등 공사 준공('16.9 ~ '19.11, 92억원)
 - *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를 고려하여 1단계 사업 우선 추진 후 2단계 사업 계획
- '24. 10 : 2단계 수중방파제 등 공사 준공('21.8. ~ '24.10, 223억원)

